

체리 생산량, 나무모양에 달렸다

농진청, 전국 6개 권역 300여명 대상 가지치기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은 바람직한 체리 나무모양을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전정) 교육을 1월~2월 전국 6권역을 돌며 실시한다.

지난 14일은 전남 곡성을 시작으로 21일 전주, 22일 경남 함양, 2월 4일 충남 예산, 5일 충북 청주, 12일 경북 문경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체리 재배농가와 체리 재배를 희망하는 귀농예정자, 체리전문지도연구회 등 3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체리재배기술전문 온라인 모임과 권역별 협회회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지난 14일 전남 곡성에서 열린 교육

은 이른 주말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넘는 많은 농업인이 모여 체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4년 200ha 정도로 추정되던 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 500ha(추정) 정도로 최근 3년~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체리 재배 농업인의 대부분은 체리 재배 경험이 적어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체리나무는 생장력이 높은 나무모양을 갖추기가 다른 과수작물에 비해 어려워 나무를 심을 때부터 바람직한 나무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가지치기 교육은 어린 나무의 초기 나무모양 관리 방법부터 다 자란 나무의 열매까지 배치기술까지 다양한 나무모양 구성을 위한 가지치기 실습으로 진행한다.

체리 나무모양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농가 각각의 경영방식과 재배환경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

재배규모가 크다면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나무모양으로 구성한다.

반대로 재배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소 노동력이 들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모양이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외국의 체리 생산량은 1,000kg/10a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 체리 재배 생산량은 500kg/10a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나무를 심은 직후부터 나무모양을 잘 구성하면 결실공백기를 1년~2년 줄일 수 있고, 수확량도 100kg/10a 이상 늘릴 수 있어 농가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체리 가지치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과수과(☎063-238-6733)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남은영 농업연구사는 “체리 생산량은 잘 갖춰진 나무모양에 의해 결정되기에 농가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소득을 위한 체리 나무모양 만들기에 한걸음 더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새농민회 대의원 정기총회 “농업·농촌 발전 초석이 돼길”

전국새농민회 전북도회는 16일 전북 농협 대강당에서 전북 새농민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성희 새농민회 전국 회장,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새농민회 임원, 시군 대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회계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북 농업발전을 위해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를 통해 전북 새농민회는 회원들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전북 도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이 총회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농업인 후배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선진 영농기술 보급하는 지역의 리더로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돼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은행 적금 중도해약률 급증

시중은행의 적금 해약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에 따르면 고객들의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지난해 말 45.3%로, 2015년 말 42.4%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만기가 도래

해 해지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해지 건수 가운데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한 건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전체 해지 건수는 2015년 말 667만956건에서 지난해 말 656만7905건으로 줄었다. 반면 중도해지 건수는 2015년 말 282만6804건에서 298만4306건으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장기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때에는 보험을 먼저 해약한다. /인재용 기자

“군장병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김병수 전북우정청장, 35사단 방문

전북우정청 김병수 청장은 지난 13일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을 위한 격려하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병수 청장은 500여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What is the POSTSHIP?'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국토방위 등 군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이면서 지위와 임무의 영어표현인 POST를 재해석한 Passion Openness Science Try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군생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미래주인공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강후 장병들은 의롭고 힘든 군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 친구와 연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



김병수 전북우정청장은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병은 “오늘 강연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소

임과 장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평소 편지를 잘 안썼는데 이번 행

사를 통해 손편지를 직접 써 보내게 돼 병영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전북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접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과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전북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개발’ 1차 지원사업을 31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와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로 구분되며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는 맞춤형 수출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강소기업과제’, ‘수출유망과제’, ‘수출초보과제’로 세분화된다.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은 벤처 또는 기술혁신형(INNO-BIZ) 인증기업이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글로벌강소기업과제’는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중기청) 선정기업의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해 한국형 하든헨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5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출유망과제’는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 내 연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의 환산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는 수출유망 품목 488개를 지정,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 동안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26일까지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시중 유통되는 양곡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중 지리적 표시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행 추진하는 양곡단속은 저가미의 경우 햅쌀에 구곡을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과 지리적 표시품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

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福